

국내경기는 4개월 만에 호전

~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으나 무더위 및 인바운드 소비가 상승시켜 ~

(조사대상 2만 7,191사, 유효회답 1만 1,282사, 회답율 41.5%,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4년 7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3.8로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무더위 효과 및 인바운드 소비 등이 견인하여 플러스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향후의 경기는 호조인 기업업적이 플러스가 되는 한편 에너지 가격의 급등 등 불확실한 요인도 많아 보합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업계별로는 『서비스』 및 『건설』 등 10개 업계 중 7개 업계에서 개선, 악화는 2개 업계였다. 더위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에어컨 특수 및 알코올 소비 등 계절수요가 상승 요인이 되었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개선, 3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호조인 인바운드 소비가 계속된 한편 건설 수요의 고조는 지역경제의 상승 요인이 되었다. 규모별로는 4개월 만에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이 모두 개선되었다.
- 무더위로 인하여 일부 업계에서 특수가 발생하였다. 에어컨 및 음료 판매, 택시 이용 등이 호조라고 하는 목소리가 다수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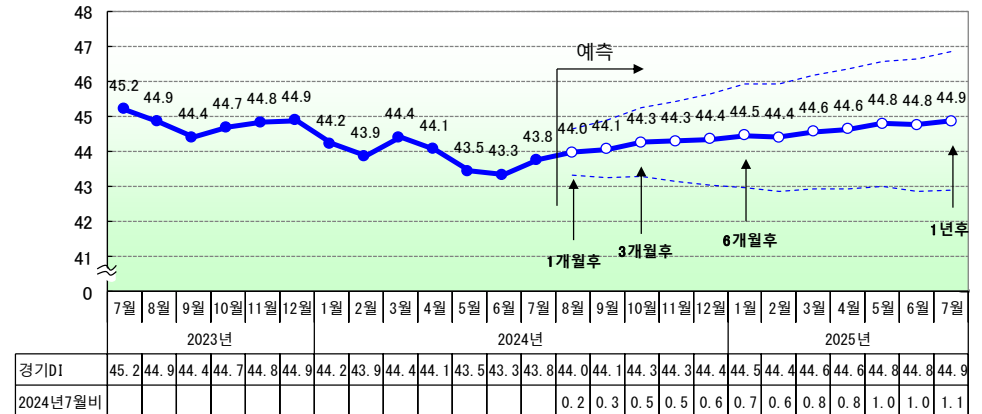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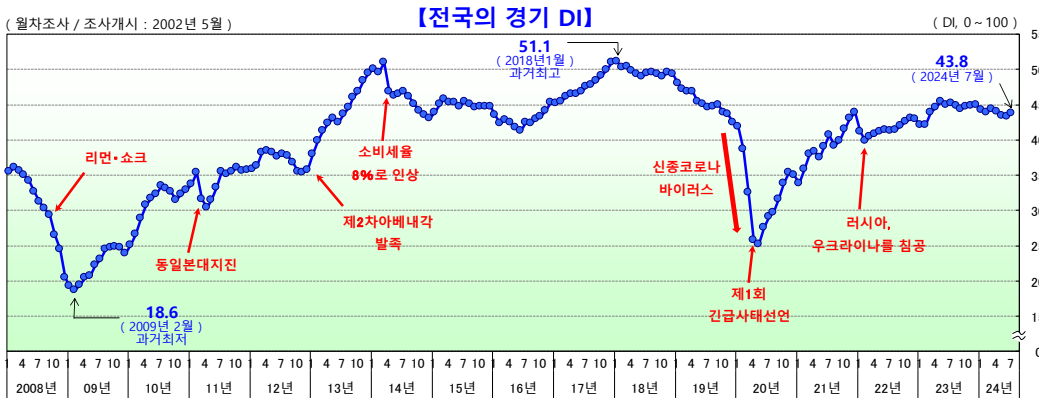
< 2024년 7월의 동향 : 4개월 만에 개선 >

2024년 7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3.8로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무더위 효과 및 인바운드 소비 등이 견인하여 플러스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7월은 외국 환율이 1달러=161엔대에서 149엔대까지 변동된 한편, 주가도 5,000엔 가까이 오르내리는 등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무더위로 인한 에어컨 특수 및 알코올소비의 증가 등 계절수요가 급확대된 한편, 호조인 인바운드 소비도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자동차 생산의 복구 및 왕성한 DX 수요, 도시 재개발사업 등도 호재였다. 한편 소비자의 절약정신 고조로 인한 개인소비 억제 외에도 사업단가 상승으로 인한 코스트 부담 증가, 인력부족 등은 마이너스 요인이었다.

< 향후의 전망 : 보합으로 추이 >

향후는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이나 정책금리의 추가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 설비투자로의 움직임 등이 주목된다. 인바운드 소비 외에 자동차의 생산확대, 생성 AI 발전의 영향을 받은 글로벌한 반도체 수요의 증가, 여기에 인력부족에 대한 로봇 도입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한편 에너지 가격 급등 및 물류 코스트의 증가, 가계 절약정신, 신종코로나 재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마이너스 요인이다. 향후의 경기는 대체로 회복경향으로 보이는 기업업적이 플러스가 되는 한편 불확실한 요인도 많아 보합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별 : 10개 업계 중 7개 업계에서 개선, 무더위 가운데 계절수요가 상승 요인으로

• 『서비스』 및 『건설』 등 10개 업계 중 7개 업계가 개선, 악화는 2개 업계였다. 더위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에어컨 특수 및 알코올 소비 등 계절수요가 상승 요인이 되었다. 한편 소비자의 절약정신 및 사업코스트의 급등, 인력부족 등은 악재가 되었다.

• 『서비스』 (50.0) …전월 대비 0.8포인트 증가.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음식점」(동 1.3포인트 증가)은 견조한 인바운드 수요와 함께, 더운 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호프 등의 체감경기가 대폭 상향하였다.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4개월 만에 「오락서비스」(동 2.9포인트 증가) 및 「료칸·호텔」(동 1.7포인트 증가)이 개선된 한편 하기 강습 및 자동차 교습소 등이 활황이었던 「교육서비스」(동 3.5포인트 증가)는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왕성한 DX수요가 계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은 「정보서비스」(보합)는 2년 10개월 연속 50대를 유지하였다. 소비자의 절약정신, 신종코로나의 재확대 등 마이너스 요인도 있으나 15개 업종 중 11개 업종이 개선되었다.

• 『건설』 (46.9) …동 0.5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에어컨 특수」(전기배선공사)등 각지에서 공조시설의 사전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한 대도시권에서의 재개발공사, 재생가능에너지 공사 등이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재해복구공사 및 방재공사, 노후화 대책 등도 상승 요인이 되었다. 한편 2024년 문제에 기인한 기술자 부족 및 건설 코스트 상승 등은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 『제조』 (39.8) …동 0.4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대기업 자동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견조」라는 목소리가 들린 「수송용기계·기구제조」(동 2.1포인트 증가)는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기계제조」(동 1.4포인트 증가)는 자동차 관련 복구가 상승 요인이 되어 5개월 만에 40대가 되었다. 금형 및 전자부품 수주에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철강·비철·광업」(동 1.0포인트 증가)은 7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한편 저조한 국내소비 및 원재료 가격의 급등 등이 악재가 되어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동 1.2포인트 감소)는 4개월 연속 침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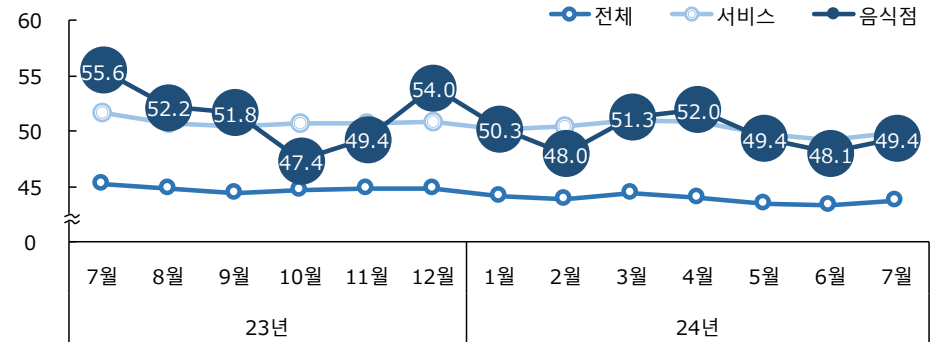
• 『소매』 (40.3) …보합. 무더위의 영향으로 에어컨 상품 경쟁이 활황인 「가전·정보기기소매」(동 2.9포인트 증가)는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종합 슈퍼 및 백화점 등을 포함하는 「각종상품소매」(동 1.1포인트 증가)는 2개월 만에 상향하였다. 신규 테넌트 증가 및 인바운드를 필두로 인파 증가와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한편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와 멀어질 것이 우려되는 「자동차·동부품소매」(동 4.2포인트 감소)는 7개월 만에 30대로 하락하였다. 절약정신으로 인한 내점 빈도 및 구입 상품 개수의 감소, 기호품의 소비 감퇴 등으로부터 「음식료품소매」(동 1.3포인트 감소)는 4개월 연속 악화로 나타났다.

업계별 경기DI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농·임·수산	42.5	43.0	42.1	43.0	40.1	40.5	40.3	41.2	42.4	42.0	43.7	41.9	41.2
금융	47.4	48.8	46.8	47.3	48.0	47.0	47.7	47.7	49.2	48.8	48.0	47.6	48.5
건설	47.8	47.4	47.1	47.5	47.8	47.2	47.7	47.5	47.0	46.6	46.0	46.4	46.9
부동산	48.8	49.6	48.5	48.7	47.9	47.5	48.1	48.3	49.3	49.3	47.7	48.0	48.2
제조	41.5	41.2	40.8	41.1	41.6	41.5	40.4	39.8	40.2	39.7	39.2	39.4	39.8
도매	42.9	42.3	41.9	41.7	42.1	42.7	41.6	40.9	41.4	41.0	40.5	40.1	40.7
소매	41.9	41.8	41.4	41.9	41.2	41.5	40.8	40.6	41.4	41.7	40.7	40.3	40.3
운수·창고	43.5	43.3	42.8	44.1	43.8	44.5	43.5	41.9	43.1	43.1	43.3	43.4	42.6
서비스	51.7	50.8	50.4	50.8	50.8	50.9	50.2	50.4	51.0	50.9	49.7	49.2	50.0
기타	40.9	40.8	39.2	40.1	38.2	42.8	41.3	41.2	41.1	42.1	37.8	37.5	40.1
격차	10.2	9.6	9.6	9.7	10.7	10.4	9.9	10.6	10.8	11.2	10.5	9.8	10.2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주목업종의 경기DI 추이



주요 업종별 경기DI 랭킹

상위 10 업종	업종명	경기DI	업종명	경기DI
		정보서비스	54.1	출판·인쇄
	료칸·호텔	53.8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5.8
	전문서비스	51.8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	36.0
	교육서비스	50.9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6.1
	음식점	49.4	철강·비철·광업제품도매	36.2
	인재파견·소개	49.2	지류·문구·서적도매	36.3
	리스·임대	48.6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6.9
	금융	48.5	철광·비철·광업	37.4
	부동산	48.2	건재·가구, 요업·토석제품도매	37.5
	오락서비스	47.5	건재·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	39.0

규모별 : 전규모가 4개월 만에 모두 개선, 「중소기업」은 알고 넓게 상향

-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기업」이 4개월 만에 모두 개선되었다. 「대기업」은 5개 업계가 상향한 한편 「중소기업」은 완만하면서 폭넓은 업계에서 개선되었다. 「소규모기업」은 활발해진 이벤트 및 인재파견 등이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 「대기업」(48.2) …전월 대비 0.2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모든 규모에서 설비가동율이 상향한 가운데 투자계획 안건이 증가하는 등 『건설』은 2개월 연속 50대를 유지하였다. 또한 신NISA 및 엔저(円低)주가상승도 증권업 등에서 호재가 되었다.
- 「중소기업」(42.9) …동 0.4포인트 증가.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완만하면서 10개 업계 중 8개 업계가 상향, 폭넓은 업계에서 개선되었다. 그 중에서도 「고객」로부터의 발주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들린 『도매』는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 「소규모기업」(41.8) …동 0.2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이벤트 및 영상 제작 등이 호조였던 한편 초중학교 수험 열기의 고조 및 취미 등의 지출 확대에 의한 학습 학원 및 개인교습소의 경기DI가 50대 중반까지 상승하는 등 『서비스』가 견인하였다.

규모별 경기DI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대기업	48.6	48.0	47.8	47.9	48.4	48.1	47.9	47.7	48.0	47.9	47.9	48.0	48.2	0.2
중소기업	44.6	44.3	43.8	44.1	44.2	44.3	43.6	43.2	43.8	43.4	42.6	42.5	42.9	0.4
(그중 소규모기업)	43.4	43.5	43.0	43.4	43.1	43.3	42.6	42.4	42.9	42.3	41.2	41.6	41.8	0.2
격차(대기업 - 소규모기업)	4.0	3.7	4.0	3.8	4.2	3.8	4.3	4.5	4.2	4.5	5.3	5.5	5.3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경기DI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홋카이도	45.6	44.8	43.6	43.7	43.3	43.3	41.6	41.8	42.4	42.8	42.4	42.8	44.1	1.3
도호쿠	42.1	41.8	41.5	41.4	41.3	40.3	40.2	38.8	39.3	39.2	38.6	39.2	39.1	▲ 0.1
키타칸토	43.1	43.1	42.9	43.0	42.6	43.0	40.9	41.7	42.0	41.4	40.9	40.7	41.2	0.5
미나미칸토	47.4	46.6	46.4	46.3	46.7	46.6	46.5	46.6	47.2	46.6	45.8	45.6	46.1	0.5
호쿠리쿠	43.6	43.1	42.5	42.1	42.3	42.5	40.0	39.8	41.4	42.4	42.3	40.7	41.4	0.7
토카이	44.4	44.4	43.6	44.4	45.1	44.8	44.4	43.1	43.7	43.2	43.0	43.3	43.9	0.6
킨키	43.8	43.6	43.2	43.7	44.1	44.6	43.6	43.2	43.6	43.7	42.6	42.5	42.9	0.4
츄고쿠	45.3	44.3	44.1	44.9	44.2	43.9	44.3	43.2	43.1	42.6	42.8	42.6	43.6	1.0
시코쿠	42.6	41.8	41.2	41.4	41.3	42.5	42.2	41.0	41.1	41.2	40.2	39.9	39.4	▲ 0.5
큐슈	48.0	48.3	47.7	48.6	48.7	49.0	48.3	48.1	48.5	47.6	46.4	46.5	46.2	▲ 0.3
격차	5.9	6.5	6.5	7.2	7.4	8.7	8.3	9.3	9.2	8.4	7.8	7.3	7.1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개선, 인바운드 소비 및 건설수요가 상승

- 『홋카이도』『토카이』『츄고쿠』 등 10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개선, 『시코쿠』 등 3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도도부현(都道府県)별로는 25개 도도부현이 개선, 20개 현(県)이 악화되었다. 호조인 인바운드 소비 및 건설수요 고조가 상승요인이 되었다. 한편 『토호쿠』는 큰 비의 영향으로 하락세였다.
- 『홋카이도』(44.1) …전월 대비 1.3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닛탄(日胆)」「도토(道東)」지역은 어려운 상황이지만서도 대폭 상향하였다. 대규모 공장의 건설 및 도시재개발, 맨션 건설 등이 상승시킨 한편 전국에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광 수요는 호조였다.
- 『토카이』(43.9) …동 0.6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지역 내 4개 현(県)중 「아이치(愛知)」「시즈오카(静岡)」2개 현이 상향하였다. 1년 만에 전규모가 개선되었고 특히 「대기업」이 견인역할을 하였다. 가동률이 높은 상태인 자동차 관련 및 대형 건축 관련이 호조로 전체를 상승시켰다.
- 『츄고쿠』(43.6) …동 1.0포인트 증가.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1년 4개월 만에 지역 내 5개 현(県)모두가 상향하였다. 인바운드 소비가 호조인 한편 설비투자가 진행되어 리스 관련도 크게 개선되는 등 『서비스』는 4개월 만에 50대로 복귀하였다.

지역별 경기DI (2024년 7월)

도도부현별 - 경기DI랭킹 -	
1 오키나와	57.3 ↗
2 오이타	49.5 ↗
3 쿠마모토	48.6 ↘
4 이시카와	48.0 ↗
5 도쿄	47.7 ↗

